

'한국해상컨테이너협회' 14일 발족

'한국해상컨테이너협회' 14일 발족 국적선사 13사 현대상선 대회의실서 창립총회

컨테이너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비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협력과 연구를 위해 13개 국적선사들이 모여 '한국해상컨테이너협회'를 발족시켰다.

'한국해상컨테이너협회'는 5월 14일 현대상선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사인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자문사(한국선급 잠정)와 운영위원회 산하에 △신조 분과위 △M&R 분과위 △장비교환사용 분과위 △장비운영 분과위를 두기로 결정했다.

'한국해상컨테이너협회' 발족에 참여한 선사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비롯해 고려해운, 남성해운, 범양상선, 범주해운, 천경해운, 흥아해운, 동진선박, 동영해운, 장금상선, 동남아해운, 태영상선 등 13개 국적선사이다.

동협회의 회원은 한국의 국적선사 및 해상컨테이너와 관련된 법인회사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국적선사 위주로 가입, 운영될 예정이다.

동협회의 회장에는 한진해운의 전병진상무가 선임됐으며, 앞으로 협회는 △컨테이너장비 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및 사업 △컨테이너 운영 및 중요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터미널 및 임대 등 컨테이너의 관련산업에 대한 협력, 연구 조사 및 정보교환 △컨테이너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해외업계와의 제휴와 국제법규 및 규칙연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의 상설사무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며 회장사인 한진해운의 장비관리팀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04-05-17 이인애]

기사목록  프린트 → 뒤로  크게보기  작게보기

©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해운신문 주식회사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